

2013 12.22 대림 제 4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 7,10-14 <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

제 2 독서 : 로마서 1,1-7 <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

복 음 : 마태오 1,18-24 <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의 아하즈왕과 복음의 요셉성인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만 한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그분 사랑에 자기를 맡깁니다.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크게 느끼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작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실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큰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고통과 혼란은 제가 주님께 저를 맡겨드리지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 그래서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 들이면 주님의 평화가 내안에 찾아오는데 , 내가 나의 마음 ,용고집, 의지, 편견들을 내려 놓고 겸손히 그분께 나를 맡길때에 그분의 사랑과 평화가 내 안에 자리잡으시게 되실것입니다. 제 1 독서에서 나오는 아하즈왕의 표현을 보십시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힘을 경외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하느님을 경외하였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외에 사랑을 또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셉성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표징은, 즉 그 표징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약혼자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라면 약혼자를 죽음으로 내몰수도 있었습니다. 고민하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신약시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정한 마리아를 만났다고 생각 되었지만 그는 하느님을 경외하였고 그분께 대한 신뢰가 깊었기에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즈카리아에게는 주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 대화를 하였지만,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고 그 대화는 일방적 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열가지 중에 아홉은 잘 하였지만 한가지를 잘못하면 그것으로 그를 감옥에 넣어 사회와 격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웃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년을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 이웃이 나에게 험담을 하였다 하면 그만 철천지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서는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일곱번씩 일흔 번을 용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 한번의 험담으로도 그와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국의 형사법에보면 집행유예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실천의 일부분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 년형을 받고, 4 년간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어 오히려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 우리도 우리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 하는 삶인 것입니다.사실 ,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느님의 힘이 우리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웃의 험담으로 우리가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 짧은 인생 살이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로 여기버리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안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하는 형제를 감옥에 가두어버리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혹시 내가 이웃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청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징으로 드러내어 살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자녀나 남편 아내와, 서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며,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7,10-14

그 무렵 10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11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것이나 청하여라.”

12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13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14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7

1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2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3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4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6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7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8-24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